

로마시대 전염병과 기독교인의 대처

이 상 규*

목 차

- | | |
|-------------------------|----------------------|
| I. 시작하면서 | III. 이교의 대처 |
| II. 로마제국에서의 전염병의 발병과 확산 | IV. 기독교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
| 1. 첫 번째 역병(165-180) | V. 맺는 말 |
| 2. 두 번째 역병(249-262)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로마제국 당시 발생한 두 차례의 역병, 곧 안토니우스 역병(165-180)과 키프리아누스 역병(249-262)에 대해 소개하고, 이 역병이 유행했을 당시 이교도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제시한 후, 그와 비교하여 초기 기독교는 이런 역병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독교공동체는 재난의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 질병의 원인의 파악과 동시에 두려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도피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은 점, 셋째 그리스도인들이 위난에 처한 이들에게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고자 힘쓴 점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간호만으로도 사망률을 격감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종교적 이행이 나타나 기독교 성공의 한 요인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자선, 호의가 이교도들의 종교적 이행(移行)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기독교회의 수적 성장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 로마제국, 안토니우스 역병, 키프리아누스역병, 이교, 기독교

* 고신대학교 명예교수,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논문접수일 : 2020. 11. 20., 논문심사일 : 2020. 12. 02., 게재확정일 : 2020. 12. 10.

I. 시작하면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 질병이나 자연 재해 등 사회적 위기가 있었고,¹⁾ 이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우리가 대역병(大疫病, epidemic) 혹은 전염병을 말

1) 고대의 전염병으로는, Hittite plague (c. 1320-1300 BC), Plague of Athens (429-426 BC), Antonine Plague (165-180 AD), Plague of Cyprian (249-266), 6세기 이후에는 First plague pandemic (541-767), Plague of Justinian (541-542), Roman Plague (590), Plague of Sheroe (627-628), Plague of Amwas (638-639), Plague of 664 (664-689), Japanese smallpox (735-737), Black Death (1347-1351), Sweating sickness (1485-1551), 16세기에는 Influenza pandemic (1510), Mexican smallpox (1520), Influenza pandemic (1557-1559), London plague (1563-1564), Maltese plague (1592-1593), London plague (1592-1593), 17세기에는 Maltese plague (1623), Italian plague (1629-1631), Massachusetts smallpox (1633), Great Plague of Seville (1647-1652), Maltese plague (1655), Naples Plague (1656), Great Plague of London (1665-1666), Maltese plague (1675-1676), Great Plague of Vienna (1679), 18세기에는 Great Northern War plague (1710-1712), Great Plague of Marseille (1720-1722), Great Plague of 1738 (1738), Russian plague (1770-1772), Persian Plague (1772), North American smallpox (1780-1782), Yellow fever (1793- 1798)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19세기에는 Ottoman plague (1812-1819), Maltese plague (1813-1814), Caragea's plague (1813), Groningen epidemic (1829), Great Plains smallpox (1837- 1838), Typhus (1847-1848), Copenhagen cholera (1853), Stockholm cholera (1853), Broad Street cholera (1854), 20세기에는 Manchurian plague (1910-1911), LA pneumonic plague (1924), Croydon typhoid (1937), Yugoslav smallpox (1972), London flu (1972-1973), Indian smallpox (1974), Surat plague (1994), Malaysian Nipah virus (1998-1999)가 있었다. 21세기에는 Singaporean dengue (2005), Indian dengue (2006), Chikungunya outbreaks (2006), Pakistani dengue (2006), Iraqi cholera (2007), Zimbabwean cholera (2008-2009), Bolivian dengue (2009), Gujarat hepatitis (2009), W. African meningitis (2009-2010), Haiti cholera (2010-2019), Pakistani dengue (2011), Darfur yellow fever (2012), Swansea measles (2013), Western African Ebola (2013-2016), DR Congo Ebola (2014), Madagascar plague (2014), Odisha jaundice (2014), Polio declaration (2014), Indian swine flu (2015), South Korean MERS (2015), Angolan yellow fever (2016), Yemeni cholera (2016-present), Gorakhpur Japanese encephalitis (2017), Saudi Arabian MERS (2018), Kerala Nipah virus (2018), Équateur province Ebola (2018), Kivu Ebola (2018-2020), Madagascar measles (2018), Samoa measles (2019-present), Philippine measles (2019-present), Pacific NW measles (2019), New York measles (2019), Kuala Koh measles (2019), Tonga measles (2019), DRC measles (2019-2020), New Zealand measles (2019-present) 등지에서 역병이 발병한 바 있다. 이상은 지역적인 감염병이었던 반면에 세계적인 역병으로는, Influenza pandemic (1510), Influenza pandemic (1557-1559), Second plague pandemic (1348-19th century), First cholera pandemic (1816-1826), Second cholera pandemic (1829-1851), Third cholera pandemic (1852- 1860), Third plague pandemic (1855-1960), Fourth cholera pandemic (1863-1879), Fifth cholera pandemic (1881-1896), 1889 flu (1889-1890), Sixth cholera pandemic (1899-1923), Spanish flu (1918-1920), Asian flu (1957-1958), Seventh cholera pandemic (1961-1975), Hong Kong flu (1968-1970), HIV/AIDS (1981-present), SARS (2002-2004), Bird flu (2003-2005), Mumps (2009), Madagascar plague (2008-2017), Swine flu (2009-2010), MERS (2012-present), Chikungunya (2013-2014), Zika (2015-2016), 그리고 COVID-19 (2019-present)가 있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Antonine_Plague

하면 중세기 특히 14세기의 흑사병을 생각하지만 이런 유의 질병은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염병은 로마시대에도 창궐하여 사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고 로마제국의 붕괴에도 영향을 끼쳤다. 의학이 발전한 20세기에도 역병은 간헐적으로 발생했는데, 1918년의 스페인독감 이후만 보더라도 1957년의 아시아독감, 1968년의 홍콩독감, 2002~2003년 사스, 2003~2009년의 조류독감, 2009년의 신종 플루, 2015년의 메르스 등이다. 최근(2019-2020)에는 중국 후베이성 무한(武漢)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 사회와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에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로마시대 유행했던 대역병에 대해 정리하고, 이런 역병의 현실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의 현실에서 기독교회의 역할을 숙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로마시대의 두 차례의 역병을 소개한 후 이교사회의 대처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서 초기 기독교회는 사회적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검토하고, 이런 기독교회의 대처가 종교적 이행(移行)을 거쳐와 기독교회의 성공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I. 로마제국에서의 전염병의 발병과 확산

로마시대의 첫 300여 년 간 두 차례의 대역병(大疫病)이 발생하여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고 제국의 군사적 약화, 인구의 감소, 사회적 혼란, 경제적 붕괴, 그리고 중국의 몰락에 영향을 끼쳤는데, 두 차례의 역병(165-180, 249-262)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역병(165-180)

첫 번째 역병은 2세기 중엽인 165년 겨울에 발병하여 180년까지 15년간 로마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안토니우스 역병(Antonine Plague)이었다. 이 병의 확산을 목격하고 기록을 남긴 마쿠스 아울렐리우스(Marcus Aurelius, 121-180)의 시의(侍醫)였던 그리스인 의사 클라디우스 갈레노스(Claudius Galenus Κλαύδιος Γαληνός, 129- c. 216)의 이름을 따 ‘갈레노스 역병’(Plague of Gale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터키의 페르가몬(버가모) 출신인 갈레노스는 로마제국의 저명한 의사이자 철학자

였고,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학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 저명한 인물이었다. 그가 로마에 정착한 이후 다섯 황제들의 시의였는데, 역병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아우렐리우스의 시의였다.²⁾

마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당시인 160년 경 로마군대에는 28개 군단이 있었고, 각 군단에는 5,120명의 군인이 속해 있었다. 따라서 14만 3천400여명의 군인이 복무하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복무 병역의 60%에 해당하는 예비군을 두고 있었는데, 이들은 보통 비 시민권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이 복무기간을 채우면 로마제국의 시민권이 부여되었다.³⁾ 이 때의 역병은 아우렐리우스 치하에서 게르만 족과 대치하고 있던 근동 시리아(실루기아)의 루키우스 베루스(Lucius Verus, 130-169)의 군부대에서 발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역병은 로마제국의 동부지역 국경인 북부 이란 지방의 옛 나라인 파르티아(Parthian) 지방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군인들에 의해 동부지역으로, 165-166년에는 골(Gaul)과 라인강을 따라 저지대 지방으로 전파되었고, 그리고 로마까지 전파되었다. 루키우스 베루스는 161년 이래로 마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공동 황제이자 로마의 장군이었다. 역병은 곧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 휴가로 귀향했던 군인들에 의해 다시 군부대로 전염되고 다시 군단으로 옮겨가면서 군인 사망자들도 속출했다. 루키우스 베루스도 이 역병으로 168년 1월 사망했다.

역병에 걸리면 물집이 생기고, 열이 나고, 작고 붉은 반점이 온 몸에 생겨 하루나 이틀 후 발진(發疹)으로 변한다. 그 후 2주간 단순 포진이 생기고 딱지가 되어 벗겨지며 온몸에 재 같은 것이 남는다. 환자가 피를 토하기도 했고, 변(便)은 병의 증상을 보여주었는데, 검은 색 변을 배설한 사람은 반드시 죽었다고 한다. 이 때의 역병이 발진티푸스였는지 홍역이었는지 아니면 두창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당시는 그저 역병으로 생각했다. 이때의 질병에 대하여 당대의 갈레노스(Galen) 외에도 그리스의 웅변가이자 저술가였던 아엘리우스 아리스티데스(Aelius Aristides, 117-181), 이교 철학자였던 루치안(Lucian of Samosata, c.125-180 이후), 그리고 로마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카시우스 디오(Cassius Dio, c.155- c.235) 등에 의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역사가 프랭크 맥린은 당시 역병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2) David Stone Potter, D. J. Mattingly, *Life, Death, and Entertainment in the Roman Empir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9), 63.

3) 제니퍼 라이트,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서울: 산치림, 2020), 16.

“말라리아를 비롯한 치명적 질병들은 끔찍했지만 로마인들은 그것들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드렸다. 노예 및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접근해 와도 지나치게 동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통치하의 로마를 덮친 역병은 그 때까지 로마인들이 경험한 것과는 그 정도와 유형에서 전혀 다른 것이었다.”⁴⁾

이 질병은 특히 근접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작전상 이동이 불가피했던 군부대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사망자가 속출했고 부대 편성의 재구성이 필요했을 정도였다.⁵⁾ 군부대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희생도 적지 않았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174년 혹은 175년 아테네에 보낸 편지에서 아레오바고(Areopagus, Ἀρειος Πάγος)⁶⁾ 법정 최고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역병으로 피해자가 속출하여 이전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위층 생존자가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이다.⁷⁾ 또 이집트의 옥시린쿠스(Oxyrhynchus)와 파이움(Fayum)에서 발굴된 파피루스문서로 된 이집트의 세무관련 기록에 보면 이집트의 여러 도시에서도 인구의 급속한 감소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⁸⁾ 이런 현상은 로마에도 동일했다. 166-180년 어간의 로마시에서의 민간인의 건축 계획(Civic Building Project)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같은 기간의 런던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보고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역병의 피해가 제국의 전 지역에서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사회는 통계에 무관심하여 정확한 사망자를 알 수 없으나 의사학자(醫史學者) 윌리엄 맥닐(William McNell)은 로마제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 심지어는 3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한다.⁹⁾ 프랭크 맥린은 연구가들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산정하면 총 사망자 수는 최소 1천 만 명으로 산정했다.¹⁰⁾ 맥린 자신은 1,800만

4) Frank McLynn, *Marcus Aurelius: A Life* (Cambridge: Da Capo Press, 2009), 459.

5) Richard P. Duncan-Jones, *Structure and Scale in The Roman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72.

6) 아레오바고(Areopagus)는 그리스어 ‘아레이오스’(Ἀρειος)와 ‘파고스’(Πάγος)를 조합한 그리스어의 영역인데, 아레이오스는 그리스 신 가운데 전쟁의 신인 아레스(Αρης)에서 온 형용사이며, 파고스는 바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다. 즉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바위’란 의미가 있다.

7) James H. Oliver, *Greek Constitutions of Early Roman Emperors from Inscriptions to Papyri* (Phil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89), 366-388.

8) 인구 감소에 대한 파피루스증거(papyrological evidence)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R. J. Littman and M. L. Littman, “Galen and the Antonine Plague” *American Journal of Philosophy*, 94(1973), 243-255를 참고할 것.

9) Bart D Ehrman, *The Triumph of Christianity* (NY: Simon & Schuster, 2018), 137.

10) Frank McLynn, 467.

정도로 추산한다. 이는 로마제국 인구의 30-36%에 해당한다. 그런가하면 미국의 세균학자인 한스 진저(Hans Zinsser, 1878-1940)는 “사망자가 많아 이탈리아의 도시와 마을이 공동화되고 황폐화 되었다”고 썼을 정도였다.¹¹⁾ 로마의 정치가였던 디오 카시우스(c.150-235)는 역병이 한창 유행하던 189년 후반 로마에서는 매일 2천명이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 역병은 발병 이듬해에는 중국에까지 전파되었기 때문에 사태가 심각했다. 황제 마쿠스 아울렐리우스도 이 역병으로 180년 3월 17일 비엔나에서 사망했다. 흔히 지병의 악화가 사인이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역병으로 사망했고, 그의 시신은 테베레 강변의 하드리아누스 영묘(靈廟)에 안치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 있는 것, 숨 쉬고 사색하고 즐기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지 생각하라.”고 했던 그도 역병 앞에는 소수무책이었다. 한스 진저는 이때의 역병은 서구 사회에 최초로 등장한 천연두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 두 번째 역병(249-262)

두 번째 발병은 기독교를 심하게 탄압했던 데시우스(Trajan Decius, 249-251)가 황제가 되던 249년부터 262년까지, 간헐적으로는 270년까지 유행했던 키프리아누스 역병이었다. 이디오피아에서 발병한 이 역병은 251년 창궐하기 시작하였고 252년에는 카르타고로 확산되었다. 이병은 사람과 사람간의 접촉이나 의복을 통하여 감염되어 빠르게 이동하여, 그리스를 거쳐 시리아로, 그리고 로마로 전파되었다. 262년까지 계속된 이때의 전염병은 도시와 농촌으로까지 파급되었는데, 증상은 급속한 구토, 설사, 고열, 피부 발진, 인후 통, 그리고 손과 발의 괴저(壞疽, 손발이 썩음) 현상이었다.¹²⁾ 이때의 역병을 홍역이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스타아코폴로스(D. Ch. Stathakopoulos)같은 이는 천연두로, 역사가인 카일 하퍼(Kyle Harper)는 유행성 인플루엔자(pandemic influenza) 혹은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성 출혈열(viral hemorrhagic fever)로 보기도 한다.¹³⁾

이때의 유행병을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Cyprianus, 200년?-258)가 자신의 설교, ‘죽음을 면치 못함에 대하여’(De mortalitate)에서 병세와 사회상황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기 때문에

11)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발흥』 (서울: 좋은 씨앗, 2016), 120.

12) 아노 카렌, 『전염병의 문화사』(서울: 사이언스 북스, 2001), 115.

13) Kyle Harper, *The Fate of Rome: Climate, Disease, and the End of an Empi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을 보라,

붙여진 이름이었다.¹⁴⁾ 키프리아누스는 이 때의 역병이 인명의 피해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 현실을 초래하였다고 기록했다.¹⁵⁾ 역병은 천연두나 홍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지역에서는 면역력의 부재로 피해가 컸고 치사율도 높았다. 결과적으로 인적 손실을 가져와 군인력이 크게 감소하였고, 인적 손실은 식량생산에 영향을 주어 식량부족 현실을 초래했다.

이 병이 정점에 달했을 때 로마시에서만 하루에 5천명이 죽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맥닐은 주장하고 있다.¹⁶⁾ 그런가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음을 맞았을 것으로 보우크(A. Boak)는 추정했다. 이때의 역병에 대해서는 기독교 관련 여러 기록이 남아 있는데, 키프리아누스는,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이 전염병과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썼다. 몇 년 후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부활절 설교에서 “청천벽력처럼 그 어떤 재앙보다도 공포스러운 존재인

14) 키프리아누스는 *De mortalitate*, 곧 역병에 관하여(On the Plague)에서 역병의 증상과 사회적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한 기독교 공동체에 도덕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This trial, that now the bowels, relaxed into a constant flux, discharge the bodily strength; that a fire originated in the marrow ferments into wounds of the fauces; that the intestines are shaken with a continual vomiting; that the eyes are on fire with the injected blood; that in some cases the feet or some parts of the limbs are taken off by the contagion of diseased putrefaction; that from the weakness arising by the maiming and loss of the body, either the gait is enfeebled, or the hearing is obstructed, or the sight darkened; — is profitable as a proof of faith. What a grandeur of spirit it is to struggle with all the powers of an unshaken mind against so many onsets of devastation and death! what sublimity, to stand erect amid the desolation of the human race, and not to lie prostrate with those who have no hope in God; but rather to rejoice, and to embrace the benefit of the occasion; that in thus bravely showing forth our faith, and by suffering endured, going forward to Christ by the narrow way that Christ trod, we may receive the reward of His life and faith according to His own judgment” Cyprian, *De Mortalitate*. Transl. Ernest Wallis, c. 1885. Online at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15)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Afterwards there broke out a dreadful plague, and excessive destruction of a hateful disease invaded every house in succession of the trembling populace, carrying off day by day with abrupt attack numberless people, every one from his own house. All were shuddering, fleeing, shunning the contagion, impiously exposing their own friends, as if with the exclusion of the person who was sure to die of the plague, one could exclude death itself also. There lay about the meanwhile, over the whole city, no longer bodies, but the carcasses of many, and, by the contemplation of a lot which in their turn would be theirs, demanded the pity of the passers-by for themselves. No one regarded anything besides his cruel gains. No one trembled at the remembrance of a similar event. No one did to another what he himself wished to experience.” *Pontius of Carthage, Life of Cyprian*. Transl. Ernest Wallis, c. 1885. Online at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16) 스타크, 121.

이 질병이 임했다”고 탄식했을 정도였다.¹⁷⁾

이런 전염병은 3가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첫째는 대량의 인명 피해였다. 거리의 즐비한 죽음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해 주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혼란이었다. 인구 감소의 당연한 결과이지만 노동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식량생산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행정력은 제한되거나 마비되었고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했다. 셋째는 배타적 이기주의가 창궐했다는 점이다. 이 점 역시 사회적 혼란의 결과이지만 우선 자신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사랑은 식어지고 이기적 행위가 당연시되었다. 사회적 위기가 심화되면 될수록 이기주의 또한 심화되고 때로는 인간성을 파괴하기도 한다.

III. 이교(異敎)의 대처

이런 전염병 위기에서 이교사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당시 사회적 인식은, 종교는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종교는 확산되는 전염병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따라서 어떤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재난의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생존의 위기 앞에서 공포로 떨어지고 절망했다. 공포(fear)와 절망감(helplessness)이 죽음의 도시에 팽배하자 이교도들은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드렸다. 당시 종교는 이 질병에 대해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신적 위안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은 도피였다. 고대 그리스의 페리클레스 시대 의사였던 코스의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of Cos, c. 460-370 BC)는 치유할 수 없는 역병의 경우 도피가 최상의 선택이라며, 빨리(cito) 멀리(longe) 도망가되 늦게 돌아오라(tarde)고 충고한 바 있다.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역병 하에서 의사가 줄 수 있는 대응 지침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도피가 최상의 안전이라고 여겨 부모는 어린 자식을 버려두고 보다 안전한 곳으로 도피했고, 자식은 늙은 부모를 버려두고 도피했다. 이교의 제사장들도 동일했다. 심지어는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시의(侍醫)였던 겔레노스조차도 166년 역병이 덮힌 고향 마을 시골로 도망갔다. 그러다가 168년 황제의 복귀 명령을 받고 아우렐리우스가 체류하고 있던 아퀼레이아(Aquileia, 지금의 이탈리아

17) 스타크, 121.

북아드리아해)로 돌아갔다고 한다.¹⁸⁾

유기된 어린 아이들은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굶어 죽었고, 늙은 노인들은 또한 굶주려 죽었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Dionysius of Alexandria, c. 200- c. 265)는 이렇게 증언한다.

“이교도들은 처음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를 내쫓았고, 가장 가까이 이는 자들이 먼저 도망쳤고,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려지고 매장하지 않는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서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을 막고자 했으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가족과 가축은 유기 되었다. 돌보지 않던 가축 또한 죽어 도시는 황폐화되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했다. 지진이나 기근, 재난이 일어나고 위기에 직면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이기주의와 불법, 사랑의 식어짐이다(마24: 12, 9-10). 실제로 사회적 위기가 심화되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팽배했고, 사랑 배려 베풀 등 자선적 가치가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마저도 의미를 상실했다.

로마 제국에는 자연종교, 신비종교, 그리고 민족 종교들이 있었으나 인간의 재난 앞에서 무능했다. 이들 이교(異敎, pagan), 그리고 이교도들은 눈앞의 재난에 무력했다기보다는 그 종교 자체가 무력한 의식적(儀式的) 종교에 불과했다. 이들 이교는 제의(祭儀)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로서 신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신도들의 행위, 신도들이 무엇을 제물(祭物)로 바칠 것인가가 중요시되던 그런 종교였다. 다신교적인 사회에서 신들은 각기 다른 기능을 행사한다고 보아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겨도 내적 충돌을 느끼지 않았다. 신들은 종족이나 민족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 세계적 종교가 될 수 없었고, 항상 국지적 종교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절대적 종교가 있을 수 없고, 종교적 이행(移行)도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종교는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재난 앞에 무력했다. 이런 종교는 교리나 윤리가 없었고 켈트 의식뿐이었다. 켈트(cult)라는 단어 자체가 쿨투스 데오룸(cultus deorum), 곧 ‘신들의 보살핌, the care of the gods’이란 의미로서 맹목적으로 신을 숭상하는 제식화(祭式化)된 종교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런 종교는 위난(危難)한 환경에서의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도 무심했고 무관심했다. 결국 당시 종교는 재난의 현장에서 어떤 가르침도 줄 수 없었다. 따라서 재난을 운명적으로 받아

18) 제니퍼 라이트, 20.

드렸고 자기중심적인 혹은 이기적인 도피가 최선의 자기 보호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이런 종교에서 윤리, 특히 생명 윤리라는 가치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IV. 기독교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는 로마사회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해 두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공동체는 재난의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죄,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인정했다(시89:31-33).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기 때문에 재난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재난과 위기의 현장에서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기를 성찰하며 내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래서 역병에 대한 인간의 무능력한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했다.

둘째, 질병의 원인을 파악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도피가 최선이 방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도피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16세기 당시 루터의 의견도 동일했다. 루터는 요한 헤스(John Hess)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전염병으로부터 멀리 가는 것만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썼고, 자신은 집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전염병 임시 치료소로 제공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도피 보다는 구호와 구제에 관심을 쏟았다. 키프리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은 역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기독교인들만 두려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죽음이 별다르게 공허한 바가 없더라도, 특별히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며 기꺼이 순교를 갈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훈련이다.”고 하면서, 이 역병이 각 사람의 공의를 검증하고 인류애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병들거나 고통당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¹⁹⁾

이교 사회는 전염병이 창궐했어도 어떠한 소망이나, 치유나 대안을 제공해 주지 못했으나 기독교회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사후에 갈 수 있는 내세를 믿음으로 전했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확고부동하게 선포했다.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와는 달리 죽음 후에는 부활의 세계를 확신했고, 살아생

19) 로드니 스타크, 127, Rodney Stark, 81.

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보여 주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위난(危難)한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고자 힘썼다. 교회의 교사들은 역병의 창궐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고 이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단지 우리(그리스도인)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²⁰⁾

이런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위난한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고자 했다. 이교도들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고, 장성한 자식들은 연로한 부모를 버려두고 도망갔다. 어린 자식들이 병들어 죽지 않고 굶주려 죽었다. 연로한 노인들이 병에 감염되기도 전에 굶어 주었다. 이처럼 죽어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살핌과 사랑이었다. 유기된 이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면 그들은 소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진 이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고 소생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가 보여준 생명윤리였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으나 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사후 세계에 대한 희망을 주었고, 서로 사랑하라는 교의는 큰 감동을 주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도 전염병으로 죽어갔지만 그래도 곳곳에 방치된 채 썩어가는 시신들이 있으면 이를 수습하고 매장까지 했었다. 교회 공동체는 죽어가는 병자들을 도우며 간호하였고, 심지어 주검들을 수습하는 매장 비용까지 지불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 알려지면서 로마의 당국과 많은 시민들은 교회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이처럼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이들에게 접근하여

20) 이상규,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6), 106.

도움을 베풀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희생된 자들도 있었다. 이 점에 대한 디오니시우스의 기록이 남아 있다. 디오니시우스는 260년 부활절 날 행한 설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 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드리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²¹⁾

자신이 감염될 수 있고 또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했는데 이는 이교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생겨난 말이 ‘파라볼라노이 *παράβολάνοι*’ 곧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라는 단어였다.²²⁾ 3세기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서 파라볼라노이라는 칭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독교가 위난자들에게 자기희생적 사랑을 실천했다는 중요한 증거였다.²³⁾ 디오니시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 대가로 죽음을 맞았고, 또 이런 사랑을 실천했던 장로나 집사 혹은 평신도들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들이야말로 순교자와 다를 바 없다고 설교했다.²⁴⁾ 이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후일 ‘사랑은 영혼의 손’(Love is the hand of the soul)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자기희생적 헌신은 3가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21) Bart D Ehrman, 138.

22) 이상규, 105, F. L. Cross and E. A. Livingstone,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Oxford Univ. Press, 1977), 1029-30.

23) 이런 실천은 초기교회만이 아니라 최근 부산의 온천교회에서 있었다. 온천교회는 지난 2월 부산에서 코로나가 처음으로 집단 발생했던 곳으로 3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온천교회의 위기였다. 온 언론으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인내했고 전원이 완치되었다.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첫째가 완치된 이들 중 21명은 지난 7월 9일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을 제공했다. 전국 최초 단체 혈장 기증으로 당시 혈장 부족을 호소했던 의료계에 큰 도움이 됐다. 둘째는 교회적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봉사하는 구청·보건소·경찰서 등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500세대를 격려하기 위해 마스크와 생필품 등을 담은 ‘생큐 박스(Thank you Box)’를 전달했다. 셋째, 지난 7월 16일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5천만원을 부산시에 기부했다고 한다.

24) Rodney Stark, 82, Bart Ehrman, 206.

첫째, 사망율의 현저한 감소였다.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자를 간호하고 위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베푼 결과로 어떤 이는 죽음을 맞기도 했으나, 모든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간호만으로도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가 있었다고 의사학자 맥닐은 주장한다.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쇠약해진 이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방 종교 신봉자들에 비해 기독교 공동체의 생존율이 월등히 높았다.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은 기독교 공동체 밖으로 확산되어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둘째, 이교숭배자들의 회심과 기독교로의 개종, 곧 종교적 이행(移行)이 일어났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인간은 고통과 공포의 시기에, 그리고 임박한 죽음의 시기에 종교적 각성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 시기에도 그러했다. 특히 당시의 다신교가 역병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자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점을 주목한 학자가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의 고대사학자인 사라 예만스(Sarah K. Yeomans)였다.²⁵⁾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베푼 형제애적 사랑은 이교 숭배자들의 마음을 열어 기존 종교를 폐기하고 새로운 종교를 수용하는 변화를 가져 온 것이다. 고대의 키프리아누스나 디오니시우스, 그리고 역사가인 유세비우스 등은 물론이지만 우리 시대의 사라 예만스나 로드니 스타크(Rodny Stark)도 이런 역병이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고 있다.²⁶⁾ 역병은 이방종교의 쇠퇴를 가져왔고, 기독교 성공에 기여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생명에 대한 사랑이 가져온 결실이었다.

V. 맺는 말

이상에서 로마시대 팬데믹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소개하고 이런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는 어떻게 대처하면 생명윤리를 실천했는가를 소개하였다. 기원 후 첫 300여 년 간 그레코-로만 사회는 영아 유기 혹은 영아살해는 당연시 되었고, 낙태는 관습화되어 있어 인간생명 존중 사상을 결여하고 있었고,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질병이나 역병, 죽음에 대해서도 운명으로 받아드려 도피를 최상

25) Sarah K. Yeomans, "The Antonine Plague and Spread of Christianity," *Biblical Archaeology Review*, March/April, 2017.

26) 로드니 스타크, 117.

의 조치로 이해했다.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와 더불어 영아 유기를 반대한 유일한 집단이었고, 낙태와 살인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

특히 로마시대에 발생한 두 차례의 역병은 엄청난 인구 유실을 가져온 팬데믹이었는데, 당시 이교도들은 도피가 유일한 선택으로 이해하여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유기하고 도피했으나 기독교 공동체는 도피를 최선의 선택으로 보지 않고 이들을 돌보고 간호해 주었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간호만으로도 사망률을 격감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종교적 이행이 나타나 기독교 성공의 한 요인이었음을 지적하였다. 기독교는 그 처한 상황에서 사랑의 시혜자이자 도반(道伴)의 보호자였음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기독교는 아우렐리우스나 테시우드 치하에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수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당시의 다종교적 다신교적 환경에서 기독교에로의 종교적 이행은 특별한 사건이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로마시대 역병은 로마제국 쇠퇴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에드워드 보크(E. R. Boak, 1888-1962)와 같은 역사가들은 계속되는 일련의 역병의 발발로 인구가 감소하였고, 모자라는 군인을 농부와 지역 공무원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식량 생산량도 감소하였다고 말한다. 또 도시와 농촌 등 행정 지원 부족으로 야만인 침략을 막는 로마제국의 역량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자연재해나 역병이 역사의 변화를 초래하지만, 이런 큰 변화의 와중에서 기독교는 절망에 빠진 민중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이다. 현세적이든 내세적이든 상관없이.

참고도서

라이트, 제니퍼.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서울: 산치럼, 2020.

스타크, 로드니. 『기독교의 발흥』. 서울: 좋은 씨앗, 2016.

이상규.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6.

카렌, 아노. 『전염병의 문화사』.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1.

Cyprian, *De Mortalitate*.

Duncan-Jones, Richard P. *Structure and Scale in The Roman Econom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Ehrman, Bart D. *The Triumph of Christianity*. NY: Simon & Schuster, 2018.
- Harper, Kyle. *The Fate of Rome: Climate, Disease, and the End of an Empi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 Littman, R. J. & Littman, M. L. "Galen and the Antonine Plague" *American Journal of Philosophy* 94(1973), 243-255.
- McLynn, Frank. *Marcus Aurelius: A Life*. Cambridge: Da Capo Press, 2009.
- Oliver, James, H. *Greek Constitutions of Early Roman Emperors from Inscriptions to Papyri*. Phil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89.
- potter, David Stone & Mattingly, D. J. *Life, Death, and Entertainment in the Roman Empir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9.
- Yeomans, Sarah K. "The Antonine Plague and Spread of Christianity," *Biblical Archaeology Review*, March/April, 2017.

Abstract

Pandemic disease in the Roman Empire and Christian Response

Sang Gyoo Lee

(Professor Emeritus of Kosin University and
Professor of Lecture at Baekseok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writer introduced the two cases of pandemic in the Roman Empire, Antonius Plague(165-180) and Cyprianus Plague(249-262), and suggested how was the pagans attitude toward plagues of their times, and then pursued early Christian response to abandoned or derelict patients. The writer pointed out that Early Christians loving care, charity, or favourable behaviour to the sufferings in the pandemic situation influenced the religious transition of the pagans, consequentially contributed the numerical growth of Christians.

Key words : Roman Empire, Antonius Plague, Cyprianus Plague, pagan religion, Christianity